



▲수덕사 주지 응산 스님(오른쪽)이 예산군수에게 '자비의쌀'을 전달한 후 인사말 하고 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의 추도 법어를 대독하는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원담 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에 참석한 큰스님들. 앞줄 오른쪽부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원로의원 혜경·진제 스님, 흥국사 주지 명선 스님, 둘째줄 오른쪽은 포교원장 해홍 스님.  
◀추도 법문한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인사말 하는 원담 문도회 대표 설정 스님(역수총림 수좌).



“을 때 한 물건도 없이 왔고/ 갈 때 한 물건도 없이 가는 것이로다/ 가고 오는 것이 본래 일이 없어/ 청산과 풀은 스스로 푸름이로다(來無一物來 去來本無事 青山草自青).”

2008년 3월 18일, 이러한 입증계를 남기고 열반한 덕승총림 수덕사 제3대 방장 원담(1926-2008) 대종사가 빛으로 다시 왔다. ‘한 물건’ (自性)은 가고 없이 없어 ‘청산과 풀은 스스로 푸르다’고 한 노래처럼 덕승산의 바람과 구름, 나무가 되어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법공양과 쌀공양을 아낌없이 베풀었다.

예산 수덕사주지 응산은 3월 7일 오전 쌀할날 날씨에도 원담 대종사 1주기 추모대례 법회를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등 원로의원과 총무원장 지관 스님, 종회의원, 이회장 자유선진당 총재, 강윤구 청와대비서관 회장(사회정책수석), 권경상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장, 최승우 예산군수 등이 참석했다.

법회는 삼귀의례에 이어 △중사영만 △행장소개 △추모문집 봉정 △추모영상 및 육성법어 △추모사 △추도사 △법어 △현화 △문도대표 인사 등으로 진행돼 원담 대종사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보시의 자리가 됐다. 게다가 주지 응산 스님은 “경제난에 고통받는 불우이웃들에게 써달라”며 최승우 예산군수에게 ‘자비의 쌀’ (10kg 200포대)을 전달하며 재(財)

보시까지 더해 그야말로 법공양, 쌀공양의 뜻깊은 추모법회가 됐다. 특히 이날 봉정된 <대관절 이것이 무슨 일이나>라는 추도 법어집 제목은 원담 스님의 하얀가 반살림 법어 중에서 따온 것으로, 대선사가 이날 동참한 후학에게 제시하는 화두가 돼 다가왔다. “대관절 이것이 무슨 일이나? 알 수 없으나,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요, 제불조사와 일체중생이 다 이 일 가운데서 생했으며, 이 일 가운데서 멸했으며, 이 일 가운데서 성불했으며, 이 일 가운데서 일체중생을 제도했으며, 이 일 가운데서 일체불사를 마쳤느니라...”

법회에는 조계종을 대표하는 선사인 종정 법전 스님과 선원대표 진제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이 원담 스님의 본지풍광(本地風光)을 선(禪)법문으로 거듭 되살려내어 의미를 더했다. 법전 스님은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생전에는 삼계를 뒤엎고 사생(四生)을 구

제한 경허(鏡虛)와 만공(滿空)의 가풍과 조증(祖證): 불조의 혜명을 이은 백납(百納)의 운수(雲水)였다”면서 “누가 격외일구(格外一句) 격식을 초월한 깨달음의 한 마디로 종사의 본분사에 제할할 것이며 평소에 남김 무위대화(無爲大化: 자취없는 큰 교화)에 화답하리요. 오오산(五蘊山: 육신) 땅어리가 모두 공해서 올 때엔 입이 없고 잘 때엔 자취가 없네”라고 원담 스님을 추모했다. 이어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은 추도사에서 “시회

(時會)대중은 원담진성 대선사(불성)를 아시겠습니까?”라고 묻고 “평생토록 만민에게 불법을 전하는데 심혈을 기울임이여, 한 몸뚱이를 때리는 분명한 그 뜻 기려서 이루지 못한지라, 만약 몸을 뒤쳐 법문의 낙처를 알 것 같으면 물에 비친 하늘은 비고 넓고, 달은 맑고 맑음이로다” 라고 설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추모사에서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의 법맥을 이은 원담 대종사께서는 종단에서도 전무후무한 업적을 일궜고 놓으셨다”면서 “오늘 이후로도 대종사님의 선지(禪旨)를 선양하고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도대표 설정 스님(덕승총림 수좌)은 “은사 이신 원담 스님께서서는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자애로우신 분이셨다”고 회고하고 “문도들은 아무런 흠집 없이 잘 살아서 스님의 율곡은 가풍과 유지를 잇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먹어도 먹어도 즐지 않는 풍성한 ‘법(法)과 밥’으로 사부대중에게 안심(安心)을 준 이번 법회는 선지종찰(禪之宗刹) 수덕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여전히 푸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를 뒤인 9일, 수덕사 임회에서 덕승총림 제4대 방장으로 추대된 설정 스님이 산중총회와 중앙총회 인준을 거쳐 취임해 다시 한번 덕승산의 선풍(禪風)을 진작시킬 것이라 기대감이 높다.

글·사진=김성우 기자 budhnapia5@hanmail.net

## 빛으로 다시 온 원담 대선사

### 1주기 추모법회 ‘법과 밥’ 공양으로 안심법문...예산군에 ‘자비 쌀’ 전달

##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스) 3.5 × 5cm  
(중) 5 × 7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열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상불소영가천도  
장량장가천도  
식식사용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 × 10mm × 12mm 55,000원  
10mm × 10mm × 12mm 65,000원  
12mm × 10mm × 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들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들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가 금강약들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들 육각불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유시 백숙(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 결림, 고혈압, 전립선염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갑다 ◆오심, 구역, 관동통,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온열치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용인증

시약형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하리에 차가운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담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담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속담(최고60°C)보다 높은 고열(80°C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백숙(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양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